Ⅳ. 변액연금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

1.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의 의의와 현황

가. 상품공시의 의의

■ 변액연금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장내용이 복잡하여 다른 보험상품보다 보험회사와 일반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최근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쟁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됨.

○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의 과반수가 변액연금보험을 포함한 변액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16], 최근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논쟁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확산됨.

○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과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을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함.[17]

– 소비자 100명 중 14명만이 상품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18], 100명 중 25명 정도가 보험금 청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19]

– 결국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경험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야 보험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임.

---

16) 금융감독원(2012).
17) 생명보험협회(2009).
18) 지범하 외 2인(2012).
19) 보험연구원(2012).

○ 따라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정보 공시(이하 '상품공시'라 함) 개선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 상품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상품의 단순화, 소비자 교육과 함께 전문상담 및 상품공시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상품공시와 같은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현행 보험상품 정보공시는 판매시점을 전후한 정보 제공과 계약유지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나뉠 수 있으며, 판매시점을 전후한 정보공시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직접공시와 협회가 제공하는 비교공시가 있음.

○ 특히, 전문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직접공시보다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비교공시가 상담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직접공시와 더불어 비교공시에 대한 개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상품공시 현황

■ 소비자는 변액연금보험의 상품정보를 크게 보험회사와 보험협회의 2개 채널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음.

○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를 통해 변액연금보험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와 변액연금보험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입시점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보험협회는 여러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상품 비교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반기마다 보험계약관리내용을, 펀드 실적과 관련해서는 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으며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1〉 변액연금보험 상품정보 제공

시기(주체)	정보 내용	공시 관련 법규
가입 이전 (회사/협회)	•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인터넷)	• 보험업법제95조 (안내자료) • 보험업법제95조의2 (설명의무) • 보험업법제95조의3 (적합성원칙) • 보험업법제124조 (공시) • 보험업법시행령제67조 (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 (공시) • 상법제638조의2 (보험약관) • 자본시장법제88조
가입 시점 (회사)	• 청약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적용	
가입 이후 (회사)	•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 1회) • 자산운용보고서(분기 1회) • 수시공시(인터넷 홈페이지)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이나 펀드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특성상 보험업법에 따른 상품정보 이외에도 일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를 준용하여 추가적인 정보공시와 판매행위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일반 투자펀드의 정보공시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으나, 변액연금보험의 정보공시는 보험업법을 따르고 있음.

–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 투자펀드와 유사함.

– 그러나 펀드투자의 원본손실을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변액연금보험은 원본손실을 소비자가 책임지는 일반 투자펀드와 다르고, 이에 따라 변액연금보험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음.[20]

○ 다만, 펀드투자가 이루어지는 변액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는 운용설명서 등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고, 개정 보험업법(2011)은 보험회사 등 판매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20)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등장한 초기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의 원본손실을 소비자가 모두 책임지는 상품이어서 연방 증권법은 변액연금보험을 일반 투자펀드와 같은 증권으로 분류하여 규제함. 그러나 원본손실보장기능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 변액연금보험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판매행위규제가 목적인 주 증권법(Blue Sky law) 대다수(36/50개주)는 변액연금보험을 펀드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Sugano 2006).

2. 상품공시의 문제점

가. 해외의 상품공시 가이드라인

■ EU 등이 제시하는 상품공시 가이드라인[21]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는 외형상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상품의 특성, 상품에 내재된 위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보험회사와의 분쟁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그리고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함.

○ EU가 제시한 변액연금보험과 관련한 공시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변액연금보험의 상품정보 공시는 외형상 상당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정보량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변액연금보험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공시정보의 내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공시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시되는 정보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 정보제공 형태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1) EIOPA(2012).

〈표 Ⅳ-2〉 EU의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 가이드라인과 국내 공시 현황

주요 항목	제공 정보	국내 현황 평가
상품	• 상품 특성 • 선택 펀드 (유형 표기) • 보증 기능	• 보장 내용 제시 • 운용설명서에 제시 • GMDB, GMAB 설명
위험	• 적립금 가치 하락 • 펀드 주식투자와 위험도 • 보험회사 파산 가능성	• 표준이율 기준 3가지 시나리오 • 위험도별 펀드 구분 • 예금보험대상 여부 제시
비용	• 수수료 종류 • 초기 수수료와 정기 수수료 •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조기해약 시 관련비용 • 중도해지 시 보증	• 보장과 펀드 구분하여 제시 • 보장과 펀드 구분하여 제시 • 보장과 펀드 구분하여 제시 •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제시 • 중도해지 시 보증 중단 설명
분쟁 등	• 세금이나 법적 이슈 • 분쟁 시 관련 내용	• 10년 비과세 세제 혜택 제시 • 분쟁조정 관련 기술

주: EU(2012)의 변액연금보험 모범규준을 참고함.

나. 상품공시의 문제점

■ 소비자는 가입 이전 단계의 정보 취득에서 안내 자료와 설계사 등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수시공시나 비교공시에 대한 의존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22)]

○ 설계사 등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100명 중 63명으로 가장 높고, 가입 전·후의 안내자료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100명 중 19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회사의 수시공시나 보험협회 비교공시

22) 지범하 외 2인(2012)의 2011년 복수응답에 의한 설문 결과.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성향조사(2009)에서는 설계사(92.3%), 언론매체(16.0%), 안내자료(6.8%), 금융기관대리점(6.2%) 순서로 나타나, 설계사(62.8%), 안내자료(19.4%), 금융기관대리점(5.0%), 언론매체(4.3%) 순서로 나타난 지범하 외 2인(2012)의 조사와 안내자료 의존도에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존도는 두 조사의 결과가 유사함.

는 각각 100명 중 4명과 1명에 불과하여 소비자 접근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담기능을 대신하는 보험협회 비교공시의 낮은 접근성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운용설명서 등은 전문적인 표현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나,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안내자료는 전문적인 보험용어에 기초하여 변액연금보험을 설명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다 쉬운 보험용어 풀이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또한 안내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량이 많아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핵심내용(key fact sheets)만을 담은 정보전달 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내자료 등 공시정보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보험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비용과 수익률 정보가 불완전하고 이들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상품비교가 어려워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중 펀드에 투입된 금액 규모, 펀드투자 이전이나 이후에 차감된 사업비, 수수료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일반펀드와 비교하여 수수료 정보도 포괄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불투명함.
- 펀드수익률 이외에 소비자의 상품수익률 정보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Ⅳ-3〉 변액연금보험 비교공시 정보 현황

공시 항목		비교 항목
보장정보 (항목별 비교)		• 채널, 상품구분(변액), 보종(보장성, 저축성), 판매시작일, 최저보증이율, 모집수수료율(경과기간별: 1~4년), 해지환급금(유지기간: 1/3/5/7/10/20년, 남/여), 특이사항
펀드정보	수익률	• 기본정보: 회사명, 상품명, 펀드명, 펀드유형, 설정일, 전일대비등락, 순자산, 운용/수탁 회사, 수수료(운용, 수탁) • 수익률: 누적수익률(1M, 3M, 6M, 1Y, 2Y, 3Y, 5Y, 누적)
	수수료	• 회사, 펀드, 펀드유형, 기준가격, 상품명 • 수수료: 운용, 수탁, 재간접, 기타
	자산구성	• 회사명, 펀드명, 펀드유형, 상품명 • 자산구성: 유동성,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타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비교공시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상품정보와 펀드정보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종합적인 정보 파악이 곤란함.

– 상품정보에는 판매채널, 보장성 또는 저축성, 모집수수료율, 해지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한 상품비교 정보가 있고(〈그림 Ⅳ-1〉 참조),

– 펀드정보에는 크게 수익률, 수수료, 자산구성 기준으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펀드들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음(〈그림 Ⅳ-2〉 참조).

– 그러나 상품과 펀드투자 정보가 따로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과 보장의 특성 등을 투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그림 Ⅳ-1〉 보험협회 비교공시 (1): 보장정보 조회 화면

회사	상품	모집 수수료율	해약환급금 (대표 속성, 수익률(복리) 4% 기준)		보험료	공제금액구분공시	상품요약서	특이사항
			남자	여자				
		1/2/3/4년	1/3/5/10/15/20년	1/3/5/10/15/20년				
A	A	1.23%/...	135만원/...	138만원/...	월 20만원	(다운)	(다운)	가입나이, 가입한도, 상품종류, 환급금산출 기준 등

〈그림 Ⅳ-2〉 보험협회 비교공시 (2): 펀드정보 조회 화면

조회 화면 1

회사명	펀드명	수수료(%)			
		운용보수	수탁보수	재간접투자수수료	기타
A사	A변액	0.75	0.05	0.01	0.01

조회 화면 2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과거 기준가	당일 기준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누적			

■ 한편, 소비자가 안내자료에 담긴 정보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상당 부분 설계사 등 판매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민원이나 보험인식도 조사,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판매관행의 개선도 시급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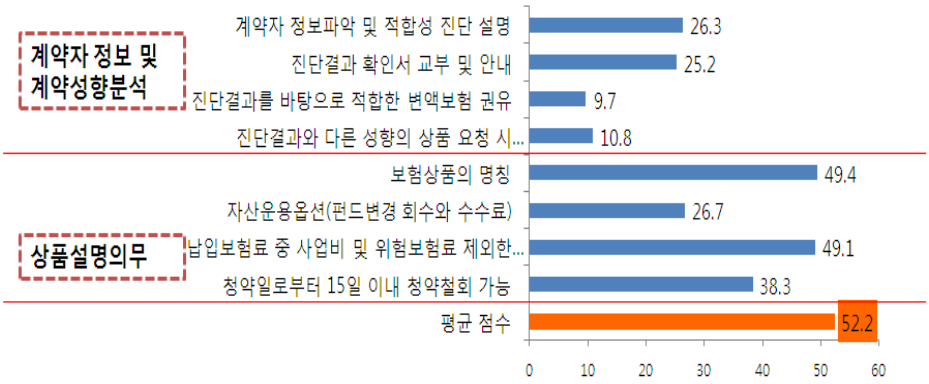
○ 2011년 금융감독원의 변액연금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판매과정에서 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준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의 적합성원칙 준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보험료 중 일부만 투자되는 내용,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3]

– 일부 설계사는 미래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임.

〈그림 Ⅳ-3〉 변액연금보험 미스터리쇼핑 만족도 평가



자료: 금융감독원(2012),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 한편, 가입 이후에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채널별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도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수시공시)와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 1회)및 자산운용보고서(분기 1회) 형태의 오프라인 정보의 내용이 달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오프라인 정보 간의 정보제공 주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자가 가입 이후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가 펀드에 얼마나 투입되었고, 사망보장과 투자보장 및 사업비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23) 2009년부터 펀드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은행권의 2011년 변액연금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에서도 설계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중 일부만 투자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현행 보험계약관리내용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현재 적립된 금액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따라서 가입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펀드투입 이전의 차감 항목, 펀드투입금액, 계약자적립금, 상품수익률 정보 등 비교공시에 준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 개선방안

■ 현행 변액연금보험의 상품공시체계는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우면서 상품 간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재정비하되,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를 보완하고, 소비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온라인/오프라인 정보를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비교공시나 수시공시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시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Ⅳ-4〉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 개선방향

주요 항목	단기 개선 사항	장기 개선 사항
비교공시	• 비용 종합, 상품수익률 제공 • 상품과 펀드 정보 통합 • 사업비/수수료 세부 정보	• 소비자의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 • 소비자 교육
보험회사 직접공시	〈가입 이전〉 • 용어, 산출식 등 안내자료 정비 • 설명의무 강화 등 판매관행 개선	〈가입 이전〉 • 용어 및 표현 전면 재정비 • 소비자 교육
	〈가입 이후〉 • 비교공시에 준해 공시 개선 • 온/오프라인 정보 불일치 해소	〈가입 이후〉 • 오프라인 정보 통합

■ 이 장에서는 변액연금보험 소비자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제시함.

○ 보험회사 직접공시는 비교공시 개선에 준하여 반영함을 전제로 함.

가. 비교공시의 개선

■ 소비자 관점에서 비교공시체계를 정비하되 변액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여러 변액연금보험상품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함.

○ 비교공시의 개선은 크게 상품정보와 펀드정보의 통합, 상품수익률의 제공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안이 가능함.

–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과 기대되는 보장 정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비교공시의 현행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와 상품수익률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에 따라 3개안을 고려할 수 있음.

○ 3개안 모두 위험보장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보장수익이 빠진 상품수익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품수익률 대신 회수기간을 제시함.

– 이때, 상품수익률을 경험수익률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렵고[24],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도 크므로 일반 투자펀드의 경우처럼 계산기를 활용하여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거나 회수기간을 제시함.

– 또한, 펀드수익률은 현행 기간수익률 기준으로 제시하고 기간수익률을 연환산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지할 것을 제안함.

〈표 Ⅳ-5〉 비교공시 개선안

공시 형태	상품 – 펀드정보의 통합 여부	상품수익률 제공 방식
제1안	(X) 분리 형태 유지 • 상품, 펀드 정보 분리	(△) 상품수익률 제공 • 예상수익률로써 별도 공시
제2안	(O) 통합 형태로 전환 • 상품과 펀드 정보 통합	(O) 상품수익률 제공 • 예상수익률로써 통합 공시
제3안	(O) 통합 형태로 전환 • 상품과 펀드 정보 통합	(△) 상품수익률 제공 • 납입보험료 회수기간 통합 공시 • 상품수익률 별도 공시

■ (제1안) 상품과 펀드의 정보를 분리하는 형태로써 위험보장과 펀드투자가 결합된 복합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공시체계임.

○ 복합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의 이질적인 두 측면을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법임.

– 이에 따라 상품수익률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평가가 곤란한 보장수익이 누락된 수익률이므로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임.[25]

○ 기존 분리공시의 틀에서 비용정보를 종합하고 보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함.

○ 그러나 소비자는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위험보장 비교와 자산운용 비교를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교정보로서는 한계가 있음.

24) 변액연금보험펀드는 장기간 유지되는 반면, 사망률 등의 변화로 상품은 2~3년마다 변경됨.

25) 제Ⅱ장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쟁'을 참조 바람.

– 여전히 상품정보와 펀드정보가 분리되어 있고 상품수익률은 별도로 공시되고 있어 정보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Ⅳ-4〉 비교공시 개선안: (제1안) 분리 공시

회사	상품	펀드	사업비 (보험료대비)		위험보험료 (보험료대비)	최저보증 (적립금대비)	연금 지급기간 비용	추가비용			모집 수수료	환급금 (4%)	상품 요약서
			7년 내	7년 후		보증형태 보장규모	(연금액 대비)	추가 보험료	인출 수수료	펀드 변경 비용	1/2/3/4 년	1/3/5/ 10/15/20 년	
A사	A변액	a펀드	13%	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50%	3%	Min (0.2%, 2000)	없음	1.23%/...		(문서)
		b펀드	13%	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50%	3%	Min (0.2%, 2000)	없음	1.23%/...		(문서)

회사	펀드	유형	투자 지역	투자 전략	자산 속성	약관상 주식 비중	실제 주식 비중	실제 채권 비중	기간수익률									기준 가격	수수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당해 년도	누적		운용	일임	수탁	사무 관리
A사	a	주식	국내	인덱스	가치 주																	
			해외	자산 배분																		

■ (제2안) 상품과 펀드의 정보를 통합하는 형태로서 공시와 관련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공시체계임.

○ 비용정보와 수익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용이한 구성임.

○ 납입보험료에서 펀드투자와 적립금 및 수익률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일곱 가지 비용 및 수익률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시함.

– 먼저, 납입보험료를 100으로 했을 때 모집수수료 등으로 초기에 지급되는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 펀드투입비율을 표시함.

– 다음으로, 펀드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보장비용과 보장내용(사망 및 최저투자보증), 펀드관련 수수료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비교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의 기간수익률과 소비자가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펀드수익률, 경과기간 등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여 산출되는 상품수익률을 펀드수익률과 병기하여 제시함.

○ 변액연금보험과 일반 투자펀드의 단순 비교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서 변액연금보험이 가지는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펀드를 변액연금보험의 경쟁상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가능함.

〈그림 Ⅳ-5〉 비교공시 개선안: 제2안

회사	상품	펀드	펀드 유형		사업비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입비율		위험보험료 (보험료 대비)	최저보증 (적립금 대비)	펀드 수수료 (적립금 대비)	펀드수익률 (기간수익률)			상품수익률 (적립금 / 납입보험료 * 100 -1)		
			1	2	10년 내	10년 후	10년 내	10년 후	보장내용	보증형태 보장규모	운용, 수탁 총 수수료	기간을 선택하여 전시 (3월, 6월, 1년)			1년	10년	20년
A사	A변액	a펀드	국내	주식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1.25%	-2.56%	2.81%	-11.60%	-10%	20%	42%
		b펀드	국내	채권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85%	0.97%	1.64%	4.25%	-9%	34%	55%

■ (제3안)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으로서 상품정보와 펀드정보를 통합하는 제2안을 따르되, 상품수익률 대신 회수기간을 제시하여 보험상품으로서 변액연금보험의 특성을 제시함.

○ 제2안과 마찬가지로 비용정보와 수익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용이한 구성을 유지함.

○ 다만, 펀드수익률과 병기하는 수익률로서 상품수익률 대신 회수기간(payback period)을 제시함.

– 회수기간이란 펀드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 규모와 같아지는 데 소요되는 연수를 의미하며 변액연금보험의 장기 특성을 보여줌.

– 이때, 회수기간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는 펀드예상수익률은 협회의 산출모형을 준용함.

○ 이 경우에도 상품수익률은 계산기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하나 펀드수익률과는 별도로 제시하여 제1안의 요구를 수용함.

○ 변액연금보험이 일반 투자펀드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회수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제2안보다 번거롭다는 비판이 있음.

〈그림 Ⅳ-6〉 비교공시 개선안: 제3안

회사	상품	펀드	펀드 유형		사업비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입비율		위험보험료 (보험료 대비)	최저보증 (적립금 대비)	펀드 수수료 (적립금 대비)	펀드수익률 (기간수익률)			납입보험료 회수기간 ("납입보험료=적립금"이 되는 소요년수)		
			1	2	10년 내	10년 후	10년 내	10년 후	보장내용	보증형태 보장규모	운용, 수탁 총 수수료	기간을 선택하여 전시 (3월, 6월, 1년, 3년, 5년)			2%	4%	6%
A사	A변액	a펀드	국내	주식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1.25%	-2.56%	2.81%	-11.60%	20년	18년	15년
		b펀드	국내	채권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85%	0.97%	1.64%	4.25%	19년	17년	14년

나. 사업비와 수수료 정보공시 개선

■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사업비는 비교공시를 통해서 총사업비와 경과기간별 사업비를 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사업비율로 보여주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정보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제시하고 해지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시함.

○ 납입보험료 대비 총사업비 수준을 경과기간별로 공시함.

〈표 Ⅳ-6〉 사업비 공시 예시

구간	1~7년	8~10년	11~13년	14년 이후
사업비 (보험료 대비 %)	X.X%	X.X%	X.X%	X.X%

■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수료 공시를 수취부분과 지급부분으로 구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수수료만 부담하게 함.

○ 변액연금보험 운용수수료 수준(45~76bp)은 판매자보수(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에 해당)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수수료 수준(25~68bp)보다 높음.

〈표 Ⅳ-7〉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공시 세분화

변액연금보험 공시	일반펀드 공시 현황	개선안
운용(수취) 수수료	집합투자업자 보수	운영보수 (보험회사)
		투자일임보수 (자산운용사)
수탁(지급) 수수료	신탁업자 보수	수탁보수 (은행 등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사무관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 또한, 변액연금보험의 펀드 위탁이 계열 자산운용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일임보수도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변액연금보험 규모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투자일임 비중은 60%가 넘음.

다. 판매관행 개선

■ EU(2012)의 변액연금보험 판매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함.

○ (1) 판매자는 소비자 성향에 맞게 변액상품을 제시하고, (2)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3) 수익률이나 손익 발생 과정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함.

○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은 보험료 중 일부만 투자되는 내용,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 (3) 관련 설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음.

〈표 Ⅳ-8〉 변액연금보험 판매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주요 이슈
소비자 여건	• 적합성 원칙 • 충분한 설명	• 연령, 재무상태, 수요, 지식, 투자기간 • 변액상품의 대안 상품 설명
적절한 정보제공	• 잠재적 위험 : 성과예시와 급부 • 보험회사 모니터링	• 현실적 시나리오, 해지/사망 시 급부 • 판매자 평가
잠재수익률 이해	• 경제변수와 수익률 • 과거 펀드와 장래 수익률 • 고객의 이해도	• 경제변수가 투자성과에 미칠 가능성 • 실적 및 예시의 한계 • 판매자의 고객 이해도 평가
손익 발생 과정 이해	• 변액연금보험 기본 특성 설명 • 펀드 가치 등락에 따른 급부	• 펀드, 보증, 수수료 구조
명확한 언어	• 비전문가도 이해할 용어 사용 • 판매자 교육	• 상품설명서 활용 • 복잡한 내용의 교육

주: EU(2012)의 변액연금보험 모범규준을 참고함.

■ 따라서 보험회사 등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부담할 비용이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현재는 보험료, 보장되는 위험 및 보험금, 해약환급금, 투자형태 및 구조,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의무사항이나,

○ 변액연금보험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만이 투자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